



[업계소식]

◆ 제8회 한국SCM대상 서병륜 회장 개인부문 수상

지난 11월 13일 서울무역전시관(SETEC)에서 열려



국내 SCM 및 물류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기업과 개인에 포상하는 제 8회 SCM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13일 대치동 서울무역전시관(SETEC)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SCM학회(학회장 이영해)는 지난 11월 13일 제 8회 SCM 대상 시상식을 열고 SCM의 추진을 통해 성공적인 경영업적을 이루고, 국내 SCM 및 물류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올해 제 8회 SCM대상 수상에서는 제조부문에 해태제과식품(주)가 선정되었으며, 유통부문에 롯데쇼핑(주) 롯데마트가, 정보서비스 부문에 (주)엠로가 각각 선정되었다. 개인부문에는 로지스올그룹의 서병륜 회장이 선정되었다.

로지스올그룹의 서병륜회장은 '물류표준화 가이드'를 편찬하여 우리나라 물류표준화 준화 필요성 인식 및 물류표준화의 방향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물류표준화 정착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물류표준마크제도 도입방안의 연구'를 편찬하여 물류정책 입안과 업계 물류표준화 확산에 기여하였고, 현재 '물류표준설비인증제도'로 그 결실을 보고 있으며 중형트럭 적재함 광폭화 추진 활동을 하여 적재함 규격을 표준파렛트가 2열 적재 가능하도록 2280mm로 광폭화함으로써 일관파렛트화 즉 일관수송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전산업계 물류표준화 보급에 큰 추진 역할을 하였다.

◆ LogisALL 창립 24주년 기념행사 열려

물류의 역사와 함께한 LogisALL



LogisALL은 창립 24주년을 맞아 9월 30일 6층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기념식에는 서병륜 회장을 비롯한 각사 임원과 10년 근속자 18명 중 17명이 참석했으며,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골드라인 이흥기 회장 영예의 '2009년 한국물류대상 산업포장 수훈'

국제 물류기기 트렌드를 주도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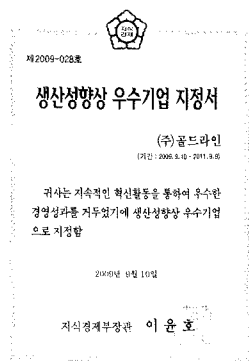


2009 대한민국 물류선진화 촉진대회 및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이 11월 2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하게 폐막되었다. 물류강국을 향한 꿈과 열정을 주제로 거행된 본 행사에서는 한국물류협회의 2020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최고영예인 2009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이 이어졌으며, 이어서 물류인의 밤 행사 등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골드라인 이흥기 회장은 지식물류체계 구현, 그리고 Supply Chain Management(SCM, 공급망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기업의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적의 물류기기 및 시스템 개발로 물류산업 표준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 부문, 영예의 대한민국 산업포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특히 국내외 생수이동의 편의성에 중점을 둔 인간중심의 생수 전용 파렛트랙 및 생산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적인 자원재 활용과 그린 물류체계의 구현, 해외시장개척,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과 최고수준의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주)골드라인의 비전에 대해 이흥기 회장은 “어려운 국내의 경기를 검토하여 물류 표준화를 통한 기업물류비 절감 및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국제 물류기기 트렌드를 주도하는 선진화된 선도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아시아 경제권역의 물류기기 이동과 관련한 무관세 추진과 국내 전문 물류인력 양성에도 힘을 보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골드라인 생산성향상 우수기업 지정



(주)골드라인(대표 이흥기)이 지난 9월 10일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고 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33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생산성향상 우수기업으로 지정되었다.

한승수 국무총리,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및 경제5단체장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국가생산성대회는 올해로 33회째를 맞았으며 매년 생산성본부 주관으로 경영의 과학화, 시스템화를 통한 체계적인 기업 경영과 혁신활동을 통하여 모범적인 생산성향상을 이룩한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정부시상제도이다.

생산성향상 우수기업은 최근 3년간 전사적 생산성향상 및 경영혁신활동 성과가 우수한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증제도로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국가 경영품질 인증제도다.

‘물류혁신 고객감동’을 모토로 하고 있는 (주)골드라인은 물류부문 생산성 향상 평가 및 생산성향상 추진내용 및 혁신활동 전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생산성향상 우수기업으로 지정되었다.

◆ 영림목재(주)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참가

동북아 물류Biz 중심 인천으로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인 인천에서 국제 물류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읽고 물류경쟁력 확보 방법론을 모색해볼 대형 국제행사가 열렸다.

인천시가 국내외 700만명이 참가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뜨겁게 달궈진 가운데 인천세계도시축전 연계행사인 '2009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InterLOGIS 2009)'가 오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Songdo Convensia)에서 열렸다.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인천국제물류전에는 110여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냈다. 부스규모로는 400부스 가량 된다. 대한통운, 한진, 선광, 영진공사, 우련, 범한판토스, 한익스프레스, 삼영물류 등 국내 내로라는 종합물류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이들과 함께 대한항공, DHL 코리아, 쉐커코리아 등 항공/특송사들의 글로벌 수준의 물류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살펴볼 수 있었다.

블루버드소프트, 이노텔리텍, 금강오토텍, 영림목재, 스타이로텍스코리아, 하나테크 등 물류시스템 및 물류기기 개발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물류 시스템 및 기기산업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다.

◆ 이견산업, 중국에 원목 수출

솔로몬 조림지서 연간 20만^m 보속생산

이견산업이 솔로몬 조림지에서 생산된 유칼립투스 원목의 중국 수출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건은 지난 1996년 솔로몬에서 조립을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생산을 시작해 베트남에 연 5만㎡ 판매에 돌입한 바 있다. 중국 수출은 두 달여 전 시험물량이 선적됐으며 조만간 본분량 선적이 시작된다는 게 이 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원목생산에 돌입하게 되는 2,3년 후부터는 연간 20만㎡의 보속생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건이 솔로몬에서 생산, 수출하고 있는 유칼립투스 원목은 베트남에서는 정원가구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 수출용은 합판제조용으로 쓰일 전망이다.

◆ 두산인프라코어 “2015년 세계 10대 디젤엔진 메이커 진입”

중국 서공그룹과 합자회사 설립...쉬저우에 5만대 규모 공장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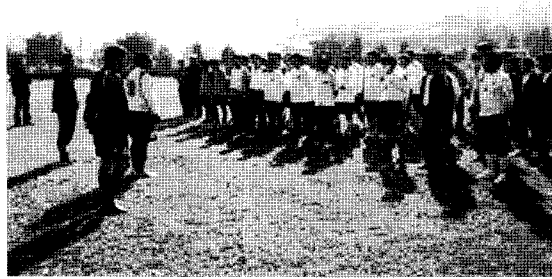
두산인프라코어가 세계 10대 디젤엔진 업체로 진입하고자 중국 디젤엔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자회사인 두산중국투자유한공사(DICI)가 중국 서주집단공정기계유한공사(서공그룹: Xuzhou Construction Machinery Group)와 중국 내 건설기계, 대형트럭 및 발전기용 디젤엔진을 생산·판매하는 합자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에 설립될 ‘서공두산엔진유한공사’에 각각 50:50의 지분으로 향후 4년간 총 6억 8000만 위안(약 124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생산공장은 장쑤성 쉬저우 경제개발구역 19만8000㎡ (6만평) 규모 부지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로써 2015년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을 포함하여 국내외에서 중대형 디젤엔진 10만대를 제조하는 세계 10대 디젤엔진 메이커로 도약하게 된다.

◆ 09년 하반기 용마로지스 친선대회 개최



MAXIM,maxwell 등의 커피,커피믹스를 비롯하여 POST,현미녹차 등의 제품으로 유명한 동서식품은 용마로지스 중요 운송 거래처로서 2004년 친선축구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여 6년째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 년 2회 실시하기로 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다.

조금 쌀쌀한 날씨였지만 열띤 응원 및 선수들의 힘찬 움직임과 열의로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이번 친선축구대회에서는 용마로지스, 동서식품 직원 약 90여명이 함께하여 친목을 다지는 만남의 장이 되었으며 상호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였다.

◆ 용마로지스 3PL Master 과정 수료식



2009년 YSIP과 관련하여 <3PL Master 과정>이 9월 26일 개강식과 함께 10월 24일까지 4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수료식이 있었다.

이번 <3PL Master 과정>은 신규화주 입고 시 필요한 장비선정 및 인원설정 등에 관한 물류 고급과정을 배우는 과정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현장물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었다.

이번 수료식에는 운영본부장인 김용규 이사가 참석하여 “이번과정을 통해 배운지식을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에 참여와 관심을 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수료증 수여식 및 수료식이 진행되었으며, 총 20명의 교육생들이 수료하였다.

◆ 삼영물류 생산성향상 우수기업 지정

제33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생산성향상 유공자 표창 받아

국내 대표 3PL전문기업인 삼영물류(대표 이상근)가 지난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고 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33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생산성향상 우수기업 지정과 함께 생산성향상 유공자 KPC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국가생산성대회는 매년 생산성본부 주관으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노사 공동으로 생산성향상 결의를 통한 혁신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경영의 과학화·시스템화를 통한 체계적인 기업 경영과 혁신활동을 통하여 모범적인 생산성향상을 이룩한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정부시상제도이다.

◆ 대한상의, 물류 선진화 위한 ‘고품질 물류 컨설팅’ 제공

삼영물류 등 국내 우수 물류전문기업 전문가 참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1일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던 물류부문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제조, 유통 회원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물류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밝혔다.

이번 무료 컨설팅에는 대한봉운, 한진, 한솔CSN, 삼영물류, EXE c&t, 물류혁명코리아

아, 해성, 조양국제종합물류 등 국내 유수의 전문물류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SCM 및 물류 교육, 진단, 평가, 개선방안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취득 교육, 관세 및 통관문제 자문 등의 서비스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SCM 및 물류진단 지표를 사전에 제작, 배포하여 분석을 실시한 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심층토론도 진행하는 등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무협-한국통합물류협회, MOU 체결

화주-물류기업 간 Win-Win 전략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와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김진일)는 20일 중국 상해에서 화주인 무역업체와 물류기업이 해외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기관은 앞으로 중국을 비롯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는 지역에서 화주기업은 해외 현지에 안정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해외진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물류기업은 해외 물량을 미리 확보한 후 진출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에 연차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통합물류협회 간에 양해 각서를 맺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국토해양부가 추진해 온 국내 물류기업들의 해외 물류거점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물류기업의 글로벌화 추진정책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09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이젠 녹색표준시대 온다...

지난 10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회관에서 열린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제표준화기구는 올해 세계 표준의 날 주제는 ‘표준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정했다”면서 “녹색성장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세계적인 녹색강국이 되기 위해선 녹색기술의 개발과 이를 표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맹(ITU) 세계 3대 표준화기구가 정한 세계 표준의 날이다. 이들 기구는 표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화두를 매해 세계 표준의 날 주제로 정하고 있다. 올해 국제표준의 주제는 '녹색'이었다. 온실가스 배출 감시와 측정, 제품의 탄소 발자국 측정, 가정·직장 에너지 효율 설계와 구축 등 표준이 기후대응변화에 끼칠 영향은 방대하다. 정 총리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세계경제는 녹색기술을 통해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나라가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권동일 서울대 교수가 산업설비 신뢰성 확보기술의 국제표준화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정부 훈장을 받았다. 정부 포장은 강신영 전남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김형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엄재균 명지전문대 교수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단체부문의 국제 표준화 대상(대통령 표창)은 와이브로 등 우리기술 표준화를 주도한 삼성전자 DMC연구소(대표 조병덕)가 받았다. 총 31명 유공자, 11개 단체 등에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 물류비 절감을 위한 포장용기 개발 과제설명회 열려

연세대학교 산업협력단, 에너지 순환형 물류시스템 위한 포장용기 개발 연구 진행

연세대학교 산업협력단은 지난 9월 23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포장용기 및 운영관리 최적화 기술 개발 기획 과제설명회'를 가졌다.

국내 시장의 대형화와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제조기업 및 물류기업에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맞춤형 포장용기의 개발로 에너지 순환형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과제 설명회에서 연구 책임자인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의 이윤석 교수는 “물류 효율화를 위하여 농산물 일관사용 포장용기 기술, 수산물 다목적 포장용기 기술, 전기전자 부품 포장용기 기술, 공동물류 활성화를 위한 포장용기 기술, LNG 보급 활성화를 위한 컨테이너 기술, 수입곡물용 차량의 다용도화를 위한 컨테이너 기술, 물류포장용기 운영 최적화 기술 등의 용기개발에 대한 총괄연구를 산학연이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물류 혁신을 위한 수송포장 실무 세미나 열려

한국공업포장협회, 2회에 걸쳐 교육 진행

한국공업포장협회(회장 임경빈)에서는 7월 17일 대구에서, 7월 24일 서울 용산에서 2회에 걸쳐 “물류 혁신을 위한 수송포장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협회의 김형빈 부회장이 “물류 변화에 의한 수송포장의 동향”과 “합리적 포장비 산출 방법”에 대한 강연이 있었으며, 광진수출포장(주)의 이광철 대표이사가 “화물 사고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업포장 분야의 합리적인 포장비 산출 방법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합리적 포장비 산출 방법에 대한 교육은 현재 공업포장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업체간 덤핑이나 과당경쟁 등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 '녹색성장시대의 KWPA의 역할과 목재보존의 발전방향' 세미나

지난 9월 25일 영림목재(주) 회의실에서 열려...



한국목재보존협회는 지난 9월 25일 인천 남동구 소재 영림목재 회의실에서 '녹색성장시대의 KWPA의 역할과 목재보존의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종신 회장을 비롯 금화방부 상병찬 대표와 전일목재산업 김병진 대표, 목재유통센터 류재윤 박사, 동양목재 김창환 대표, 산수종합목재 강현규 대표, 중동 김태인 대표 등 회원사와 관계자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일본목재보존협회 회장인 이마무라 유지 교수와 국립산림과학원 이동흡 박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 내년 교통·물류 부문 예산 16조 5,041억 원 책정

국토부, 8,216억 원은 산업단지 물류활동 지원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23.8조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교통 및 물류 부문 예산안은 16조 5,041억 원이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 23.8조 원 중 SOC는 23.5조 원으로 도로 등 여타 SOC에 20조 원, 4대강에 3.5조 원이 투자된다. 국토부 측은 "특히 4대강(3.5조 원)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여타 SOC 예산 20조 원은 지난해 당초 정부안 19.6조 원보다 0.4조 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10년 주요 예산안의 부문별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도로 부문 : 확장위주의 건설보다는 기존도로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09년 당초 정부안 7.9조 원보다 0.3조 원이 적은 7.6조 원으로 편성하였다.

- 철도 부문 :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춘선 등 기존에 지연된 주요 사업의 조기 구축을 위해 '09년 당초정부안 보다 10% 증가한 5.2조 원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 산업단지 부문 : 지역 및 기업의 생산·물류활동의 지원을 위해 '09년 당초정부안 6,797억 원보다 32% 증가한 8,216억 원을 편성하였다.

◆ 2009 글로벌물류혁신컨퍼런스 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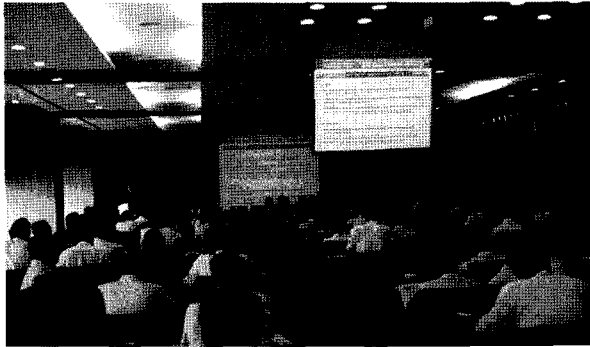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김진일)은 9월 18일 팔레스 호텔에서 2009 글로벌물류혁신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김진일 회장, 컨퍼런스 조직위원장인 로지스윌 그룹 서병륜 회장을 비롯 조직위원 25명이 참석해 컨퍼런스 분과별 역할 및 성공적인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향후 일정 계획과 전략을 논의하였다.

분과별 위원장으로 프로그램개발 분과위원장에 힐스컨설팅 박명규 대표, 운영분과 위원장에 물류산업연구원 정명수 부원장, 홍보분과위원장은 운송신문사 국원경 대표가 선출되었다.

◆ “물류는 하나의 산업, 그에 맞는 정책 절실”

물류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토론회



지난 9월 30일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관한 ‘물류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토론회’가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일 통합물류협회장은 “협회는 물류업계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이번 정책토론회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토론회가 물류정책이 바로 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정책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신평식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실장은 “경기회복이 눈에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물류산업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가를 토론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물류산업의 팍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노고를 치하고 “사실 물류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제 가격 경쟁보다 서비스의 질로 승부하는 물류산업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도 물류산업 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원해 가겠다”며 정부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사격할 것을 약속했다.

◆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추진

수출입 컨테이너 흐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무선인식(RFID) 기반의 물류거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올해 RFID 적용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이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의 흐름 관리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의 일환으로 RFID 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 인천·평택·군산·울산·마산 항만과 공항을 포함한 서울권 톨게이트 12개소의 화물차로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각 거점의 차량 추적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해 다양한 물류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물류거점정보시스템(ULTS)을 고도화하고 이의 운영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추적정보를 관련 업계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물류주체 간 정보연계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항·항만을 거쳐 철도·육로를 이용해 내륙 화물기지 및 창고로 컨테이너가 운반되면서 관련 정보가 단절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물류 가시성이 확보되면서 향후 예측정보 제공이 가능해지고, 물류거점정보시스템에서 수집된 운행차량의 고속도로 및 물류거점 진출입 정보를 기반으로 운행 차량의 위치, 운행 완료 여부, 예정시간 등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한국무역협회, 녹색물류경영전략 사례 보고서 발간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최근 친환경산업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우리나라 녹색물류산업(Green Logistics)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해 '사례를 통해 본 녹색물류경영전략' 보고서를 간행하고 오는 10월 9일(금)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녹색물류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녹색성장이 단순한 환경보호차원을 넘어 기업과 국가의 성장발전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녹색물류는 선진국에 비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하주지원단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물류체계 도입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사례를 중심으로 본 녹색물류경영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플라스틱합성목재 “장점이 곧 단점이다”

목재가 가장 인체친화적 재료라는 것 시험결과가 입증

플라스틱합성목재(WPC, 이후 합성목재)에 대한 목재업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합성목재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합성목재의 장점이 곧 단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이동흡 박사는 지난 9월25일 한국목재보존협회가 개최한 ‘2009 목재보존 세미나’에서, ‘WPC의 장점=단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합성목재 업계에서 합성목재의 장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 그 자체가 심각한 단점임을 조목 조목 강조했다.

이 박사가 이날 밝힌 합성목재 업계에서 장점이라고 주장되고 있는 부분은 △수분에 안정하다(내수성) △청소, 교체 등 유지보수가 간편하다 △변형 및 갈라짐이 없다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색이 변하지 않는다(내후성, 내충성) △포름알데히드 및 VOCs 방출량이 거의 없다 △방부/화학처리가 필요없어 인체에 안전하다 △사용 후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다 등이다.

◆ 물류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구성 쉬워진다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이 완화되고 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 분양가격이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 수준(조성원가+적정이윤[조성원가의 5%])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물류단지내 임대주택 입주가 활성화되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물류단지 개발 후 미분양 등으로 기업이 입주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 지연으로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곤란함에 따라 이번에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90% 이상 회원 가입'에서 '75% 이상 회원 가입'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을 완화해 협의회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물류단지 관리기관 중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